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Global SME Policy Trend

- 📍 **스페셜리포트**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형자산 활용
- 📍 **해외동향** 미국 중소기업청, SBIC 프로그램 통해 301억 달러 투자 (등 13건)
- 📍 **주요일정** START Summit 2019(스위스 장크트갈렌, 2019.3.21.~22) (등 6건)



목 차

I. 스페셜리포트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형자산 활용

요약	1
1. 무형자산 활용의 필요성	2
2. 무형자산 활용 제약 요인	4
3. 주요국 무형자산 활용 현황	6
4. 무형자산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11

II. 해외동향

〈미국〉

1. 미국 중소기업청, SBIC 프로그램 통해 301억 달러 투자	14
--	----

〈영국〉

1. 영국, '18년 민간기업 수 전년대비 2만 7천개 감소	15
---	----

〈독일〉

1. 독일, 5년 미만 신생 기업 중 사회적기업 비중은 9%	16
2. 독일, 법인세 인하 필요성 증대	17

〈유럽〉

1. 북유럽, 유럽 최고의 테크 허브로 부상	18
--------------------------------	----

〈오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 R&D 집중도 증가율 OECD 국가 중 2위	19
--	----



목 차

〈일본〉

1. 일본 대기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 20
2. 일본,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위해 지원 요건 검토 및 효과 검증 필요 21
3. 일본, 신용금고를 활용한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에 주목 22
4. 일본, 수익 및 생산성 개선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추진 .. 23
5. 일본,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략 구축 지원 24
6. 일본, 창업 무관심층 비중 55.2% 25

〈아시아〉

- 아시아,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개선 위해 신용 리스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26

III. 주요일정

1. Black Enterprise Women of Power Conference
(미국 라스베이가스, 2019.2.28.~3.3) 27
2. SXSW 2019: ENTREPRENEURSHIP & STARTUPS
(미국 오스틴, 2019.3.8.~12) 27
3. NextGen WOMEN ENTREPRENEURS WEEK 2019
(스위스 취리히, 2019.3.11.~15) 27
4. SME WORLD SUMMIT 2019(UAE 두바이, 2019.3.14) 28
5. WOLVES SUMMIT(폴란드 바르샤바, 2019.3.19.~20) 28
6. START Summit 2019(스위스 장크트갈렌, 2019.3.21.~22) 28

I

스페셜리포트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형자산 활용

요 약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외부자금조달 시 무형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고성장 기업들이 창출·소유한 지식기반 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지식기반 활동의 결과는 대부분 무형의 자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과 관련해 중요한 이슈는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가치 실현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와 이 분야의 데이터 개발과 평가방식 구축을 방해하는 거래비용 관련 문제임
 -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이유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단일한 가치평가방식 부재, △각각의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 평가방식의 자체적 한계 노정, △평가 맥락에 따라 상이한 평가결과 초래, △상이한 가치평가 방식과 가치개념 사용으로 인해 가치평가 보고서에 편차가 존재, △무형자산의 추정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등이 지적됨
 - 규모의 결여 및 자산의 이질성 문제로 인해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임
- 많은 국가들이 혁신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들의 자금조달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자산을 활용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식자산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정책 단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각 국가들이 실시하는 지원제도의 공통점은 신뢰구축을 위한 보증 조치인데, 제공되는 보증의 수준은 말레이시아 50%, 싱가포르 80%, 중국 100%임
- 성장이 빠른 혁신기업은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자산의 가치와 증권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형자산과 금융을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임
 - 정책개입의 목표는 시장실패의 원인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시장 자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임

【원 문】

- OECD, Fostering the use of intangibles to strengthen SME access to finance, 2018.12

① 무형자산 활용의 필요성

- 은행 대출은 중소기업 외부 자금조달의 주요한 원천이지만, 고성장 기업들은 여전히 혁신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할 때 이러한 자산이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고성장 기업들이 창출·소유한 지식기반 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유형자산은 거의 없는 반면, 무형자산이 풍부하고 혁신적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 기업의 경우가 대표적임
 - 지식기반 활동의 결과는 대부분 무형의 자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금융 관련,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특징을 물리적 실체의 부재, 비화폐적 특성 및 식별 가능성 등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이 컴퓨터화된 정보, △특허, 라이선스, 디자인 등과 같은 혁신자산, △브랜드, 인적자본, 조직구조와 같은 경제적 역량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

〈표 1〉 무형자산의 형태 비교

컴퓨터화된 정보	
1. 컴퓨터 소프트웨어	- 향상된 프로세스 효율성, 프로세스 혁신을 보다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능력, 향상된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
2. 컴퓨터화된 데이터베이스	- 소비자 니즈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및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 능력 - 최적화된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
혁신 자산	
3. 과학 및 엔지니어링 R&D(새로운 제품 및 새로운 생산공정을 위한 지출로 대체로 특허 또는 라이선스로 귀결)	-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 - 새로운 기술
4. 광물 자원개발(새로운 매장지 획득을 위해 지출)	- 미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자원의 위치 및 접근에 관한 정보(가능한 낮은 비용을 지출)

5. 저작권 및 라이선스 비용(오락 또는 예술적 창작물 개발을 위한 지출로 대체로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로 귀결)	- 미래의 라이선싱, 재생산 또는 성과를 위한 예술적 창작물, 디자인 및 기타 창조적 자산 - 발명 및 혁신적 방법의 확산
6. 기타 제품개발, 디자인 및 연구 지출(반드시 특허 또는 저작권화 되지는 않음)	- 보다 접근 가능한 자본시장 - 정보 비대칭성 및 모니터링 비용 축소 - 미래 산출로 연결되는 새로운 디자인 -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혁신적인 디자인과 향상된 프로세스
경제적 역량	
7. 브랜드 자산(광고 지출 및 브랜드와 상표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 향상된 소비자 신뢰, 혁신 기반, 가격 프리미엄, 증가한 시장 점유율, 품질 커뮤니케이션 - 구체적인 소비자 니즈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및 제품과 서비스 대응 능력
8. 기업특화 인적 자본(종업원 스킬 개발 비용, 즉 직무 관련 교육을 위한 OJT와 교육 비용)	- 향상된 생산 능력 및 역량 수준 - 의사결정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외부적으로 획득된 개선
9. 조직 구조(조직 변화 및 개발을 위한 비용, 기업 설립 비용)	- 의사결정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의 내부적 개선

자료 : Corrado, Hulten and Sichel (2005) with mechanisms of output growth for the company investing in them, as amended by OECD (2013)

□ OECD와 신흥국가에서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는 유형자산 투자를 능가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영국 지식재산실(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추정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무형자산은 기업가치의 70~80%를 차지함

□ 기업의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짐

○ 잠재성이 높은 기업들은 첫 거래부터 지속가능한 수익성을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 보조금이나 에쿼티 자금을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 이는 동 단계에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임

-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영역으로 이동하였을 때 비로소 차입금 등 간접금융(non-dilutive debt)¹⁾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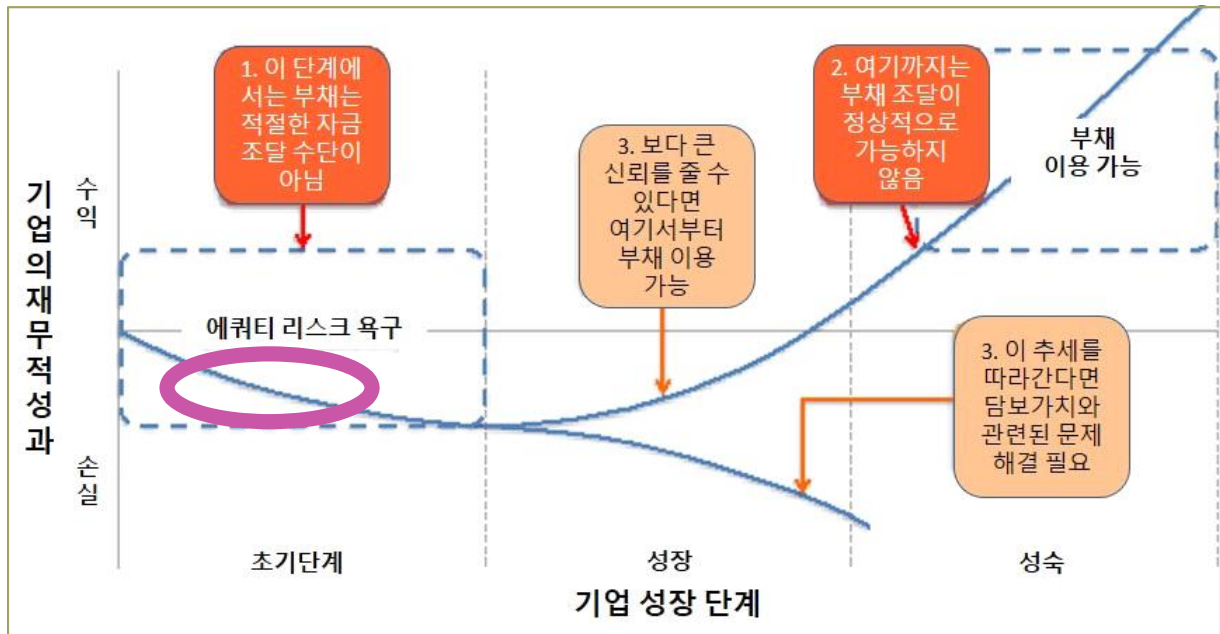
○ 무형자산은 가치가 표시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무형자산을 담보화

1) 비희석화 부채(non-dilutive debt)는 주식을 제공하지 않고서도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함

할 수 있도록 무형자산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는 대출기관들이 기업의 디폴트 발생 시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

〈그림 2〉 기업 발전 단계별 부채 이용 가능성



자료 : OECD, Fostering the use of intangibles to strengthen SME success to finance, 2018.12

2 무형자산 활용 제약 요인

- 현재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됨
 - 하나는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가치 실현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 분야의 데이터 개발과 평가 방식 구축을 제약하는 거래비용 관련 문제임
-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에 대해 대출을 하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이용해 자금차입이나 지분투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치평가가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① 합의가 이루어진 단일한 가치평가 방식 부재
 - 무형자산 가치평가 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유형자산보다 복잡한데, 이는 무형자산이 자주 거래되는 투명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무형자산들은 이질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비교할 수 있는 가격 데이터가 없으며, 존재한다고 해도 비교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② 각각의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 평가 방식의 자체적인 한계 노정

- 대표적인 방식인 비용접근(cost approach)²⁾, 시장 비교(market comparison)³⁾, 소득에 대한 기여 평가 등의 방법은 모두 한계가 있음

③ 무형자산 평가 표준은 광범위한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는 수준

-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것은 국제평가표준위원회(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uncil, IVSC) 및 '10년에 도입된 국제표준 ISO 10668 등임
- 그러나 이러한 표준 내에서 제공되는 유연성과 단일한 선호 방식의 부재는 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를 어렵게 만들

④ 무형자산을 어떠한 상황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초래

- 어떠한 평가 방식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어떠한 '가치 개념(value concepts)'을 채택하느냐, 어떠한 자금 조달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⑤ 상이한 가치 평가 방식과 가치 개념 사용으로 인해 가치 평가 보고서에 편차가 존재

-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 가치 평가 보고서는 항상 계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만 대출기관 또는 투자자는 기업에 의해 제공된 가치가 자신들이 의뢰한 보고서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⑥ 무형자산의 추정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 가능

-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가치를 지닌 자산은 거의 없으며, 무형자산의 움직임은 많은 측면에서 유형자산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치 변화의 주요 원인 중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 포인트의 명확성이 떨어짐
- 예를 들어 금융기관은 감가상각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무형자산의 경우 관리가 잘되면 시간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음

□ 거래 규모의 부족 및 자산의 이질성 문제로 인해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임

○ 자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면 대출기관들은 다양한 자산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거래 경험이 필요한데, 무형자산의 경우 거래 규모 확보가 어려움

- 유형자산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풍부하고 심층적인 데이터 사용 가능성, △잘 확립된 거래시장, △규정 지원 및 대출자 친숙성 등 때문임

2) 비용접근법은 무형자산 구매자가 무형자산을 대체하거나 복제하는데 필요한 금액 이상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자산을 현재의 상태로 완성시키는데 소요된 과거 투자의 가치로 평가

3) 시장비교 방식은 조사 대상인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을 시장에서 판매된 유사한 자산 '묶음(bundles)'과 비교하는 방식

- 그 중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 규모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개별 무형자산의 이질성도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요인임
 - 무형자산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고 사업 내에서 자산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 일반적인 품질 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임
-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보고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은행의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도 중요한 문제임
 - 은행의 입장에서는 무형자산과 이들이 기업 비즈니스 모델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친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이러한 자산을 담보화하는 등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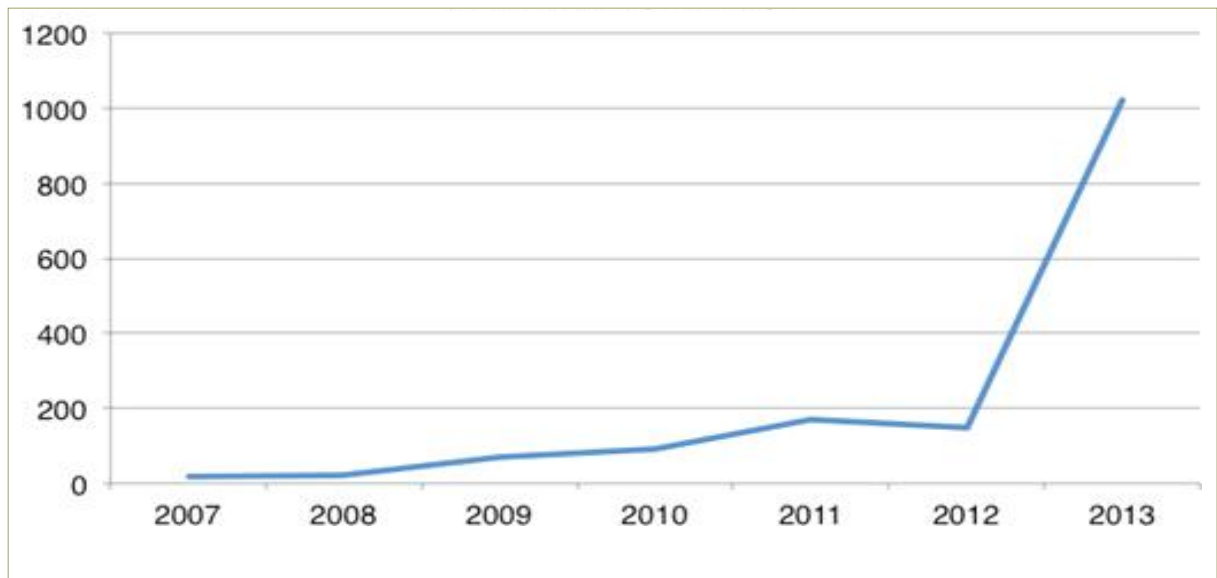
3 주요국 무형자산 활용 현황

- 많은 국가들이 혁신기업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들의 자금 조달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지식재산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집중되어 있음
 - 모든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들의 공통점은 무형자산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자산 가치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것임
 - 제공되는 보증의 범위와 수준은 국별로 다른데, 말레이시아 50%, 싱가포르 80%, 중국 100%임
- (중국) 국가가 지식재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 '06년에 최초로 무형자산에 대한 은행대출을 실시하였음
 - '15년 기준으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된 금액은 약 600억 위안, 대출을 받은 기업은 총 2,000개 정도로 추정됨
 - 중국 정부는 '17년에 발표된 '국가지식재산전략(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5개년 계획에서 연간 특허 담보를 1,800억 위안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 전략 하에 △부실 채권을 충당하기 위한 국가 지원 보상제도, △보증회사 또는 '위험 및 보상 펀드' 설립, △대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금리를 대출받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 조치, △지식재산 기반 대출을 받은 기업이 지불해야할 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등의 조치들이 개발됨

- 상하이의 지식재산 대출 정책은 '09년에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고, '13년 말 기준으로 총 500건, 18억 위안 규모의 대출이 제공되었음
- 상하이 정부는 금융기관, 보증회사, 평가회사가 서로 협력하는 플랫폼 제공과 함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음
- 상하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식재산 담보 평가 기준 및 운영 지침에 관한 표준과 자금조달 방식 수립, △파일럿과 실험 실시, △프로세스 합리화 등임

〈그림 4〉 상하이시의 지식재산 금융시장 발전 추이(2007~2013년, 백만 위안)



자료 : Luo, Financing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Pledge - A Case from Shanghai, China, Shanghai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per presented to WIPO General Assembly, 2014

- (일본)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자산 이용가능성이 높고 지식재산 기반 자금 조달이 용이함
- 일본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Japan)의 대출 활동은 '95년에 시작되어 최소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260건, 총 160억 엔의 자금을 지식재산 기반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음
- 최근 일본은 대출 자금을 직접 제공하거나 보증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기업 대출기관(자격이 있는 은행 및 신용조합 약 530개)의 신용의사결정프로세스(credit decision-making processes)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지만, 무형자산 평가와 관련된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음
 - 금융서비스국(Financial Service Agency)과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이 정책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본 특허청(JPO)이 주도하고 있음
 - 일본특허청이 운영 중인 이 제도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임
 - 첫째는 자격이 있는 은행이 연간 150개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에 대해 기금을 제공하도록 협정을 체결하는 것임
 - 둘째는 매뉴얼과 함께 제공되는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현재는 2회의 연례 심포지엄과 소규모 세미나가 열리고 있음)으로, 은행 대출팀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것이 어떻게 기업의 자금 흐름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지를 교육시키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난 몇 년간 기술 기업들이 자신의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킷을 제공하였음
- (말레이시아) 아세안 지역에서 최초로 지식재산 자금조달제도가 출범하였으며,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특화되어있음
-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MyIPO)이 주관하고,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와 재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MyIPO는 제도 개발을 위해 1,900만 링깃(MYR)을 받아, 'IP 가치평가를 위한 표준 개발', '현지 기업과 개인의 IP 평가 능력 및 숙련도 향상' 부문에 투자함
 -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 자금조달표준은 대출 기관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지식재산평가모델(IP Valuation Model)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자금조달제도는 최대 천만 링깃 또는 지식재산권 가치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2개월의 초기 유예기간과 5년의 상환기간, 2%의 이자율 할인을 인센티브로 제공함
 - 대출은 국가의 신용보증회사(Credit Guarantee Corporation)가 제공하는 신용보험 메커니즘에 의해 보증됨
- (싱가포르) '13년 4월에 발표된 '지식재산허브 마스터플랜(Intellectual Property Hub Master Plan)'은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지식재산기반 자금조달계획을 담고 있음
- 싱가포르 지식재산실(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의 자회사인 지식재산 밸류랩(IP ValueLab)은 지식재산 자금조달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보증기관을 운영함

- '14년 8월에 처음 출시된 이 계획은 이후 상표권과 저작권을 포함시키며 점차 확대되었음
 -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가치의 80%(최대 5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을 위주로 대출기관을 모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
 - 기업들이 전체 대출금을 받으면, 지식재산 밸류랩으로 부터 지식재산 평가 비용의 50%(최대 2만 5천 싱가포르달러)를 회수할 수 있음
 - 초반 2년 동안에는 보고된 활동이 적을 정도로 계획은 비교적 천천히 시행됨
 - 지식재산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신청절차, 싱가포르 특허를 가진 기업들의 고집, 높은 예상 거래비용, 특히 지식재산 평가 비용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함
- (프랑스) 혁신기업들이 다양한 발전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음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은 무담보 대출 및 은행대출 보증을 통해 기업의 무형자산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함
 - '16년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은 혁신기업에 대해 총 13억 유로의 자금을 제공하였는데, 이중 3.2억 유로는 5년 미만의 신생기업 1,165개에 대해 대출함
 - 또한 혁신기업의 은행대출을 보증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지원하였음
 - '17년 10월 프랑스의 비즈니스 재정관리청(France's Business Financing Observatory, OFE)은 무형자산 및 자금 관련 문제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중소기업이 무형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비즈니스 재정관리청의 주요 관심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인데, 벤치마킹을 통해 프랑스 기업들은 유럽 전체 무형자산 투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함
 - 또한 무형자산 투자가 잘 정의되어있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나타남
 - 또한 잠재적인 여러 장애물 중 정보비대칭 문제가 있는데, 대형 프랑스 은행의 일선 담당자들이 적절한 진단과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위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 무형자산 관련 활동은 주로 신용보증과 관련되어 있으며, 신용보증 중 일부는 혁신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은행대출에서 혁신 중소기업은 이탈리아의 신용보증기금(Fondo di Garanzia per le PMI)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청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음

- 60% 보증 대신 총액의 80%, 최대 250만 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사업계획 및 대차대조표에 대한 평가가 없고, A, B 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는 실사가 필요하지 않음
- '17년에 발표된 이탈리아 개발은행이 지원하는 추가 재정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무형자산이 회사의 혁신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신호장치'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음
-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전략 개발 및 실행에 별도로 투자할 수 있도록 특허권 비용의 80% (최대 14만 유로)까지 회수할 수 있는 조항도 있음

□ (영국) 영국은 현재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제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정책수립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영국 지식재산실(UK IPO)은 지식재산 기반 금융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를 후원하였음
- 그 외에도 지식재산보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 지식재산 자금조달 툴킷,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기본 원칙 및 지식재산 자산 유가증권 확보 방법 등 다수 이니셔티브가 추진되었음
- 지식재산실은 수년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식재산에 대한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주요 목표는 △기업이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개발, 강화하도록 장려하는 것, △명확한 평가를 통해 기업들이 자신의 자산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 등임
- 최근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30%는 프로세스 덕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고, 23%는 지분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9%는 대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미국)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은 민간부문이 주도하였으며, 벤처대출과 같은 메커니즘을 포함해 이 분야에서 상당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은 최초로 지식재산 기반 금융을 실시한 국가임
-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에 대한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19세기 후반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을 설립하였음
- 최근에는 은행이 관련된 특허자산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회사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음

〈표 1〉대출기관과 대출자가 제공한 특허 수

특허를 담보로 획득한 상위 대출기관		특허를 담보로 제공한 상위 대출자	
회사	특허 수(개)	회사명	특허 수(개)
JP 모건	48,804	제너럴모터스	15,866
뱅크 오브 어메리카	46,897	에이바고(Avago)	12,946
시티그룹	34,658	알카텔-루슨트	10,023
웰스 파코	32,716	코닥	8,438
월빙턴 트러스트	31,369	프리스케일 반도체	8,149
도이치방크	27,172	시게이트	5,910
		텔	4,609

자료 : Relecura, as reported in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2015.

- 미국이 특허를 대출의 직접적인 담보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담보로 획득한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임
- 이 기간 동안 지식재산을 이용해 담보가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안하였음

4 무형자산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 무형자산과 금융을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임

- 고성장 혁신기업은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산의 가치와 증권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임
-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는 영역에 따라 다르며,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 기반 자금조달에 어느 정도 집중해 접근할 것인지 등이 이슈임
- 국별 중소기업 인구 특성, 기업활동의 성격, 지식재산 권리 사용에 있어서의 문화적 특성 등이 활용가능한 자산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독창성과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말레이시아의 정부지원 금융계획에는 ‘특허 중심적’ 요소가 빠져 있음
- 정부의 정책개입 목표는 시장실패의 원인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시장 자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러한 정책개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음

□ 새로운 제도는 일정 규모를 확보해야 하며,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높은 거래비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거래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또 신뢰를 높이려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축소시키되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제도보다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가 효과적임
 - 어떤 종류의 지원도 자금 제공자가 신용제공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해서는 안됨
- 무형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기 정도의 기간은 인내할 수 있어야 함
- 대출기관이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취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년간 중재가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무형자산에 익숙해져서 규모를 확대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대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하려면 적어도 한번 이상의 완전한 회전 사이클을 거쳐야 함
 - 상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하나 이상의 대출기관이 규제 수용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기까지 약 5년 정도 소요될 수 있음
 - 장기적인 자금 투입은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지만 기존의 정책 개입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인내심'이 필요함
 - 싱가포르의 지식재산 금융 계획을 발표하고 첫 번째 대출을 발표하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었음
 - 가장 눈여겨볼 것은 상하이 사례인데, 현지 계획이 공식화된 '09년 이후 4년이 지나서야 대출기관들의 대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
- 민간부문의 참여가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의 하나임
- 전용 기금은 빠른 결과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부문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짐
 - 중국에서는 일부 전용 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실시되었지만 대부분의 대출은 정부로부터 보증자금 및 금리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상업은행으로부터 이루어졌음
-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무형자산에 대한 행동 및 태도가 변하려면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증거들이 나와야 함

-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 설계에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디지털화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훨씬 용이하게 할 것임
- 무형자산 가치 평가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어야 함
 - 주어진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표준화된 하나의 방법은 없으며, 평가방식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기준이 이론적으로 강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어야 함
- 특허는 다수 무형자산 기반 자금조달 이니셔티브의 중심이지만 특허 이외의 자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특허가 유용한 신호 장치로 남아 있지만 지식재산금융 자격요건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됨
 - 특허 취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특허가 부여될 때까지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충분한 데이터 획득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높은 거래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초기단계에서 금융기관과 보험기관들은 리스크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들 자신의 방식을 사용할 경우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실사가 필요하게 될 것임
- 이외에도 무형자산 기반 금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산의 적합성을 가장 잘 결정하는 방법,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야 함

II 해외동향



1 미국 중소기업청, SBIC 프로그램 통해 301억 달러 투자

-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
 - SBA는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이 인가한 SBICs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자금을 제공
 - 투자 자금은 SBIC가 조달한 민간자본('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으로 지칭)과 SBA의 보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SBIC가 대출받은 기금('레버리지'로 지칭)으로 구성
 - SBA는 SBICs 민간자본의 200%까지 레버리지를 제공
- '18년 9월 30일 현재, SBIC 프로그램은 민간투자를 포함해 301억 달러를 중소기업에 투자하였으며, 이중 SBA가 보증한 금액은 143억 달러
 - '18년 9월 30일 현재 305개의 허가된 SBIC가 운용 중
 - 유형별로는 채권 SBIC 227개, 이익참가부 유가증권 SBIC 25개, 은행소유-비레버리지 SBIC 47개, SSBIC 6개
 - 2018회계연도에 SBIC는 2,711건의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평균 투자 금액은 2,029,730달러
 - 2018회계연도의 SBIC 기금 사용처별 비중을 보면 기존 사업 인수(57.9%), 운영자본(18.0%), 채권 상환(13.0%), 신규 빌딩 및 공장 건축(0.9%), 연구개발(0.9%), 기계 또는 설비 구입(0.6%), 마케팅 활동(0.6%), 공장 현대화(0.4%), 기타(7.8%) 등
- 총 투자 금액 중 SBA 레버리지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26.7%(2007회계연도)→40.6%(2014회계연도)→42.0%(2015회계연도)→45.8%(2018회계연도)

▶ 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SBA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Program), CRS, 2018.12

② 영국, '18년 민간기업 수 전년대비 2만 7천개 감소

- '18년 영국 민간부문 기업 수는 5,668천개로 전년대비 2만 7천개 감소
 - '00년 동일한 조사가 실시된 이후 민간기업 수가 감소한 것은 처음
 - '00년부터 '18년까지 민간기업 수는 2,201천개 증가한 반면 유(有)고용 기업의 비중은 '00년 32%에서 '18년 25%로 감소
- 중소기업(종업원 250명 이하) 수는 5,660천개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
 - 마이크로기업(종업원 0~9명)은 541만 6천개, 소기업(종업원 10~49명)은 21만 개, 중기업(종업원 50~249명)은 3만 5천개
 - 마이크로기업은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은 33%, 매출액은 21%만을 차지
 - 대기업(종업원 250명 이상)은 8천개로 전체기업 수의 0.1%에 불과하지만 고용의 40%, 매출액의 48%를 차지
- '17년 창업기업 수는 38만 2천개로 전년도에 비해 3만 2천개 감소
 - 창업기업 감소에 따라 창업률과 폐업률 간 격차는 상당히 축소
 - '17년 창업률은 13%로 전년대비 2%포인트 하락하였으나, 폐업률은 12%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
- '17년 중소기업 중 19%는 여성이 경영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16년에 비해 1%포인트, '15년에 비해서는 2%포인트 낮아진 수치
 - 2017/2018년 '총 초기단계 기업가 활동(Total Early 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 참가율을 보면 남성은 11.5%, 여성은 5.3%로 남성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준
 - 영국 정부는 '11년에 FTSE 100에 속하는 기업의 이사회 멤버 중 여성 비율을 '15년까지 2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
 - '15년 10월에 이 비중은 26%를 기록해 정부 목표치가 달성되었으며, '18년 6월 현재 FTSE 100 기업의 이사 중 29%는 여성이며, FTSE 250 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은 24%

▶ 자료 : 영국, 기업 현황(Business statistics), House of Commons Library, 2018.12

③ 독일, 5년 미만 신생 기업 중 사회적기업 비중은 9%

- '17년 독일에서는 약 15만 4천명의 신생(young)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 또는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한 프로젝트를 추진
 - '신생' 사회적 기업가로 불리는 것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5년이 되지 않았고,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적 또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
 - 5년 미만의 신생기업 중 9%는 사회적기업인 것으로 조사
- 신생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대조기업군)에 비해 사회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성과 중장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
 - 사회적 기업가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사회적 기업가 네 명 중 한 명은 50세 이상
 - 설립 동기는 17%가 생계형 창업, 60%가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형 창업
 -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공익 추구를 영리 추구와 연계시켰다는 의미에서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제공 및 기술혁신적 제품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혁신적
 - 팀 플레이어의 비중이 높아 4분의 1의 신생 사회적 기업은 다른 사회적 기업과 협업하고 있는데, 이는 타 기업에 비해 소득지향적이지 않기 때문
- 신생 사회적 기업가들은 기타 사회적 기업가들보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비중이 높고, 필요한 자금 규모는 대부분 2만5천 유로 수준인 것으로 조사
 - 신생 사회적 기업가의 25%, 기타 신생 기업가의 40%는 외부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
 - 사회적 기업가는 마이크로파이낸싱 비율이 높고, 외부 자금 지원이 더 높게 요구되었으나, 친구/가족으로 부터의 자금 사용은 오히려 낮은 수치를 기록
- 신생 사회적 기업가는 주로 비즈니스 스킬과 인력 유치 그리고 재정 문제를 기업 설립의 장애물로 인식
 - 비즈니스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 3명 중 1명이 꼽을 만큼 중요한 문제로 인식

▶ 자료 : 독일, 신생 사회적 기업가 실태(Social Entrepreneurs in Deutschland:Raus aus der Nische - 154.000 „junge“ Sozialunternehmer im Jahr 2017), KfW, 2019.1

4 독일, 법인세 인하 필요성 증대

- '08년 법인세에 개정 후 법인세율을 30%로 유지해 왔으나,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높은 세율, 상대적으로 엄격한 상각제도, 광범위하고 시스템적인 R&D 조세 인센티브 결여, 조세법의 복잡성 증가 등이 투자 환경을 압박하는 상황
 - 독일의 흑자 재정에 관한 비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은 부진한 국내 투자활동을 자극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독일이 투자, 혁신 및 고용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제적인 세율 인하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
 - '20년까지 인접한 유럽 주요국들의 법인세율은 크게 낮아져 독일과의 격차가 최대 13%p까지 확대될 전망
 - 벨기에 34%→25%, 덴마크 21%→18%, 프랑스 33.33%→25%, 이탈리아 27.5%→24%, 영국 20%→17%
 - 미국도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감가상각비 공제한도를 확대
 - 유럽경제연구센터(ZEW)가 계산한 유효 법인세율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36.5%에서 23.3%로 낮아져 독일의 28.8%('17년)보다 낮은 수준
 - EU 28개국의 평균 유효 법인세율도 20.9%로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
- 발명과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D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고부가가치 모바일 사업 활동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점점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도 필요
 - 유럽경제연구센터에 의하면 특허박스 도입 국가는 특허박스 세율을 평균 법인세율 22.9%보다 낮은 7.9%로 책정
 - EU 28개국 중 특허박스를 도입한 국가도 10년 전 2개 국가에서 현재 15개 국가로 확대

▶ 자료 : 독일, 법인세 개혁에 관한 검토(German corporate taxes : Growing need for action), Deutsche Bank, 2018.9

5 북유럽, 유럽 최고의 테크 허브로 부상

- 북유럽(Nordics)은 '00년대 초 이후 12개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는 등 유럽 최고의 테크 허브로 부상
 - 스카이프(Skype), 마이SQL(MySQL), 스포티파이(Spotify) 등 12개 유니콘 기업의 총 시장가치는 690억 달러
 - 특히 1인당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에서는 유럽에서 1위
 - 분석 대상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5개국
- '18년 덴마크는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
 - 6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덴마크의 경우 1인당 벤처캐피탈 투자 액수는 78달러로 유럽 평균 36달러의 2배
 - 이스라엘이 372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 250달러, 영국 114달러, 독일과 프랑스 60달러 수준
 -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은 '12년 이후 벤처 라운드 수에서 북유럽 두 번째 규모의 테크 허브
 - 덴마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중 50% 이상은 글로벌 투자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 간 투자는 제한적
- 유럽과 달리 북유럽 국가들은 게임, 에너지, 통신 등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딥 테크(Deep Tech)의 비중은 약간 낮은 수준
 - '16~'18년 투자 중 북유럽 국가들의 게임, 에너지, 통신 투자 비중은 각각 8%, 8%, 6%인데 반해 유럽 전체 비중은 각각 3%, 6%, 3% 수준
 - 덴마크는 유럽에 비해 SaaS(Software as a Service), 게임, 바이오테크, 마케팅, 푸드테크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총투자 활동 중 딥테크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 딥테크(Deep-Tech)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 분야로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로봇 등
 - *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업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클라우드방식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의미

▶ 자료 : 북유럽 벤처 캐피탈(Nordic Venture Capital report), Dealroom, 2018.9

⑥ 오스트리아, R&D 집중도 증가율 OECD 국가 중 2위

- 최근 20여년간 오스트리아의 R&D 집중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혁신 시스템이 급격히 발전
 - '16년 오스트리아 R&D 집중도는 3.09%로 OECD 국가 중 6위, EU 28개국 중 2위이며, 오스트리아 통계청은 '18년 R&D 집중도가 3.19%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2020년 목표는 3.76%로 설정
- 오스트리아가 혁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
 -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R&D 투자를 생산성 증가, 고영향(high-impact) 혁신 및 글로벌 시장 진출로 전환, △전체적인 혁신 시스템을 더욱 엑셀런스(excellence)하게 업그레이드, △파괴적 기술 변화와 필요한 역량 전개에 맞춰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의 충분한 공급
- 오스트리아 혁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
 -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시스템 구축) 훌륭한 연구자들을 유지하고 유치하기 위한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
 - (산업 R&D 기반의 확장과 업그레이드 및 인터스트리4.0의 가속화) 산업 R&D를 업그레이드하고, 인터스트리4.0을 가속화하며,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 고성장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
 -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 기반 구축) 인적자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부터 대학원생 연구에 이르기까지 스킬 형성의 전 부문에 대한 관심이 필요
 - (과학의 혁신에 대한 기여 증대) 학제간 경계를 넘어 기초연구와 산업 혁신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략적 분야의 글로벌 선도 및 급진적인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다양한 정책 조합의 적용과 정책 거버넌스 강화) 관련 부처의 전략적 운영 역량(strategic steering capacities)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성을 강화해 주요 기금 운영 기관의 거버넌스와 운영 프레임워크를 개선

▶ 자료 : 오스트리아 혁신시스템에 대한 검토(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Austria 2018), OECD, 2018.12

7 일본 대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

- AI, IoT 등 혁신 기술이 등장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연계가 증가
 - 일본 대기업들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도 제조업, 금융, 철도, 미디어 등으로 확대
- 일본 대기업이 실시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사례는 경영지원 프로그램
 - 대기업은 내부인재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자산 및 자원(사무공간, 설비·점포 등을 활용한 실증실험 환경 등)을 제공
 -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데모데이로 불리는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벤처기업이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는데, 벤처 투자자나 미디어 관계자를 초대해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홍보하는 경우도 다수
 -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벤처기업이 얻는 이익은 대기업의 자산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사업에 정통한 인재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대기업이 선택했다는 신용을 얻는다는 점 등
- 대기업 측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니즈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기업도 등장해 활동을 확대
 - 특히 벤처기업과의 접점이 적고 노하우가 부족한 대기업들은 이러한 운영 지원 기업과 손을 잡는 방식으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
 - 대기업들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는 것 외에도 벤처와의 연계에 적극적이라는 이미지 부각도 가능
- 한편 대기업 외에 투자자나 지방 자치단체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벤처기업이 얻게 되는 이익을 강조하고 차별화하지 않으면 유망한 벤처기업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
 - 특히 이익이 없는 프로그램은 이른바 파워있는 벤처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

▶ 자료 : 일본 대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増えるベンチャーとの連携、大企業によるアクセラレータプログラム),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8.12

8 일본,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위해 지원 요건 검토 및 효과 검증 필요

- '16년 6월 기준 일본 중소기업은 약 358만 개로 기업 전체의 99.7%를 차지하며, 종업원 수는 약 3,220만 명으로 약 70%의 고용을 차지
 - 중소기업 중 소규모 기업 수는 약 305만 개, 종업원은 약 1,044만 명 수준
- 중소기업은 지역의 경제·고용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기반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창조·혁신을 담당하는 주체로, 일본경제 활성화의 원천이 되는 존재
 - 그러나 ①IT등의 투자축진을 통한 낮은 생산성 향상, ②경영자 고령화로 인한 휴·폐업 리스크 및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 ③창업 촉진 등이 큰 과제
- '17년도 일본의 개업률, 폐업률은 각각 5.6%, 3.5%이며(고용보험사업연보 기준) 두 가지 모두 미국, 유럽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
 -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성장전략에서 개업률이 폐업률을 상회하는 상태를 만들고, 각각 미국·영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
 - '18년 6월 각료회의가 결정한 '미래투자전략 2018'은 벤처지원 강화와 관련해 새롭게 '2023년까지 기업가치 또는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비상장 및 상장 벤처기업(유니콘) 20개사 창출'이란 목표를 설정
 - 미국 조사기관인 CB Insights에 따르면, '18년 12월 기준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 141개, 중국 81개인 반면 일본은 1개에 불과
-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의 보조금이 모럴해저드를 야기해 적절한 경영판단을 방해하고, △적정한 시장경쟁을 왜곡시켜 산업의 신진대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 따라서 중소기업 활성화는 소득 재분배가 아닌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말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집중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지원요건 설정과 그 효과 검증이 필요

▶자료 : 일본, 경제산업 시책 중 중소기업 정책 관련 주요 과제(今後の経済産業施策に関する主な課題-中小企業政策), 参議院, 2019.1

9 일본, 신용금고를 활용한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에 주목

- 일본 중소기업은 향후 10년간 70세 이상 경영자가 2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절반 이상은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고조
 - 중소기업의 흑자폐업이 잇따르는 사태는 경제에 큰 손실이며, 경영자 고령화에 따른 사업승계 과제를 방치하면 폐업이 증가해 지역경제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증대
 - 이에 향후 10년을 사업승계 집중지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승계 세제 확충 등 모든 시책을 총동원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표명
- ‘중소기업백서 2018년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영지원 서비스’,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경영지원 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
 - ‘사업승계·M&A지원’은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경영지원 서비스 중 ‘비즈니스 매칭’, ‘지방공공단체의 보조금 및 제도용자 활용 지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
 - 이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사업승계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친근한 지원기관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 한편 도산하지는 않았으나 주변 지원기관과 상담한 적도 없고 휴·폐업이나 해산이란 형태로 기업의 존속을 포기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
- 일반적인 사업승계 흐름은 ‘고객이 승계방침을 결정하기까지(전공정)’와 ‘승계방침이 결정된 후 전문가가 참여한 구체적인 시책 실행(후공정)’으로 구분
 - 이 가운데 신용금고의 사업승계 지원은 일단 전공정 지원, 즉 사업승계를 중요한 경영문제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단계로 진행시켜주는데 대한 기대가 높을 것
 - 후공정도 ‘반주형(伴走型) 지원’으로 표현되듯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전문가들과 협력할 계기를 만들거나 젊은 후계자 육성을 지원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최대한 공유하며 적시에 지원하는 포지션을 기대

▶ 자료 : 일본, 신용금고를 활용한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에 주목(信用金庫による事業承継支援の在り方とは-中小企業の“身近な存在”として期待に応えていくために-), 信金中金 地域・中小企業研究所, 2018.12

10 일본, 수익 및 생산성 개선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추진

- 일본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가 지속되면서 임금상승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산
 - 정기승급을 포함해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 80%를 넘었으며, 실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익을 종업원에게 환원하는 기업도 등장
- 인력부족이 계속되면서 수익 및 생산성 개선 분을 종업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환원할 수 있는 급여체계를 구축하는 움직임도 확산
 - (연령별 임금커브 재검토) 일률적 임금인상 대신 각 기업의 과제나 경영전략에 맞춰 연령별로 임금 개선 폭에 차등을 두는 방식
 - 청년층에 대해서는 초임 인상을 통한 채용 경쟁력 강화, 입사 후 조기 승급·승격을 통해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이 다수 존재
 - (능력 및 성과를 반영한 급여체계 도입) 기본급 결정요소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과 실적·성과를 보다 많이 반영한 급여체계를 도입하는 방식
 - 일부에서는 종업원의 모티베이션 향상과 채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직능·성과요소 비율을 확대하거나 개인의 생산성에 맞춰 유연하게 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급여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발생
 - (IT인재 채용·처우 방법 모색) 최근 IT인재 획득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은 IT인재 확보가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채용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
 - 이러한 인재는 기존의 평가·보수체제로 처우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개별 임금에 격차를 두는 형태로 기존 종업원과 다른 급여·인사체계를 적용하거나 IT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급여체계를 검토하는 기업도 등장
 - (근로방식 개혁을 지원하는 급여체계 재검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방식 개혁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잔업시간을 삭감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그로 인해 감소한 시간외 수당을 인센티브로 활용
- 노동시장 초과수요가 지속된다면 임금인상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고 기업의 임금설정 스탠스도 적극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

▶ 자료 : 일본, 인력부족 하에서의 임금동향 및 새로운 급여체계 구축 추진(人手不足のもとでの賃金動向と新たな給与体系の構築に向けた取り組み), 日本銀行, 2018.12

11 일본,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략 구축 지원

- 일본 정부가 '18년 6월 결정한 지식재산추진계획은 스타트업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
 - '누구보다 빨리 권리화하고 싶다'는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18년 7월부터 조기심사보다 더욱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하는 '슈퍼 조기심사제도'를 시행
 - 동 제도를 이용하면 평균 약 9개월 걸리는 1차 심사까지의 기간을 약 0.8개월('17년도 실적 평균)까지 단축 가능
 - 이외에 특허취득 경험이 적은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조기에 권리화하는 작업도 지원
 - 심사관과의 면접을 통해 조언을 받으면서 일반적인 조기심사 속도로 심사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 1차 심사를 약 2.3개월('17년도 실적 평균)에 처리
- 특허청은 '스타트업 지식재산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IPAS(IP Acceralation program for Startups), 슈퍼 조기심사제도, 지식재산전략 사례집 책정 등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책을 발표
 - '18년 말에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 변리사와 변호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회원제 교류 사이트인 'IP KNOWLEDGEBASE for Startup'을 오픈
- 최근 일본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거래처와의 관계강화 및 경영지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
 - '지식재산 금융'으로 불리는 이러한 노력은 관계형 금융의 새로운 형태로, 지식재산 판단능력을 강화해 거래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작업
 - 한편 '19년부터는 거래처의 비즈니스를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 '제안'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
- 낮은 대출금리로 어려운 수익환경에 직면한 금융기관에게 거래처와의 장기적인 관계구축은 시급한 과제로, 지식재산을 평가하는 안목을 높여 본업을 지원하면 제품개발이나 증산 투자 등 결과적으로 대출기회가 증가

▶ 자료 : 일본,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구축 뒷받침(スタートアップの挑戦 知財で後押し-専門チーム派遣やスーパー期審査), METI Journal, 2019.1

12 일본, 창업 무관심층 비중 55.2%

- 일본정책금융공고 조사 결과 창업 무관심층(경영 경험이 없고 창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전체의 55.2%를 차지
 - 반면 창업가('13년 이후 직접 창업했고 지금도 경영하고 있는 사람)는 1.9%, 창업 관심층(경영 경험은 없고 현재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16.0%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p 증가한 수치
 - 창업가 중 관리직 경험이 있는 비율은 41.0%로 창업 관심층(26.5%), 창업 무관심층(16.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직 경험 비율도 창업가(40.2%)가 창업 관심층(32.7%)과 창업 무관심층(18.3%)에 비해 높은 수준
- 수입, 사생활, 일하는 보람에 관한 만족도에서는 창업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창업 관심층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창업가가 34.7%로 창업 관심층(24.7%), 창업 무관심층(24.6%)보다 높은 수준
 - 일하는 보람에 대해서는 창업가의 68.5%가 '만족한다'고 답해 창업 관심층(35.1%), 창업 무관심층(34.6%)에 비해 높았던 반면 '불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창업가는 8.2%로 창업 관심층(31.0%), 창업 무관심층(23.6%)보다 낮은 수준
- 창업한 업종은 '개인 대상 서비스업'이 19.0%로 가장 많았고 '사업소 대상 서비스업'이 12.7% 등 서비스업 창업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창업비용은 '100만 엔 미만'이 36.3%,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가 21.9%를 차지하는 등 비교적 소액으로 창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창업 관심층을 대상으로 창업예정 유무를 묻은 결과, 절반 이상이 '창업하고 싶다'고 응답
 - 창업 관심층이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기 자금이 부족하다'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크다'(35.5%),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33.6%) 순

▶ 자료 : 일본, '창업 및 창업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起業と起業意識に関する調査」), 日本政策金融公庫, 2019.1

13 아시아,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개선 위해 신용 리스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중소기업은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고용과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20개 국가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전체 기업의 96%, 국가 고용의 62%를 차지
 - 이들 국가들의 중소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
-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인프라 부족, 불충분한 담보 및 높은 이자율 때문
 - 은행의 중소기업 평가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인데,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 인프라 부족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더욱 악화
 -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신용 위험 평가 도구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수단
-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 개발과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법의 활용, △중소기업의 담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담보 평가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신용보증제도의 개발,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은행 개발 등의 방법 도입을 검토
-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을 대출 기관이나 신용보증 회사에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전국적 신용 리스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 '01년 설립된 일본 신용 리스크 데이터 베이스(Credit Risk Database, CRD)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독특한 사례를 제공
 - 신용 리스크 데이터를 추적 및 분석하고 각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은 은행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자료 : 아시아 국가 중소기업들의 자금 접근성 제고 방안(THE ROLE OF SMES IN ASIA AND THEIR DIFFICULTIES IN ACCESSING FINANCE), ADB, 2018.12

Ⅲ 주요일정



① Black Enterprise Women of Power Conference(미국 라스베이거스, 2019.2.28.~3.3)



- 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본 컨퍼런스는 3일간 다수의 강연, 기업가정신에서부터 기업가 스스로에 대한 탐구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세션들, 및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
- URL : <https://www.blackenterprise.com/womenofpowersummit/>

② SXSW 2019: ENTREPRENEURSHIP & STARTUPS(미국 오스틴, 2019.3.8.~12)



- 본 행사는 창업, 전략투자, 벤처캐피탈의 미래 등의 주제에 대한 세션과 설립자·투자자의 강연을 제공하며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출시한 10개의 최첨단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우승 기업을 선발하는 SXSW Release It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SXSW Pitch도 함께 진행
- URL : <https://www.sxsw.com/conference/entrepreneurship-and-startups/>

③ NextGen WOMEN ENTREPRENEURS WEEK 2019(스위스 취리히, 2019.3.11.~15)



- 본 행사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페루, 베트남 등의 국가 출신 여성 기업가들이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단계별 워크숍 및 멘토링 세션을 마련
- URL : <http://www.women-entrepreneurs.net/>

4 SME WORLD SUMMIT 2019(UAE 두바이, 2019.3.14)



- 7000명 이상의 중소기업가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패널토론, 워크샵,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response@spiholding.net
- URL : <http://www.smeworld.ae/>

5 WOLVES SUMMIT(폴란드 바르샤바, 2019.3.19.~20)



- Wolves SUMMIT은 2,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다국적 행사로 전 세계를 선도할 혁신을 목표로 하는 유망한 스타트업, 기술기업, 임원진과 투자자들 각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약형 일대일 맞춤형 세션을 주선하고 그를 통해 효과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d.liecau@wolvessummit.com
- URL : <https://poland.wolvessummit.com/>

6 START Summit 2019(스위스 장크트갈렌, 2019.3.21.~22)



- 본 행사는 2,500명의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보다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가정신과 기술 컨퍼런스로 기술 분야의 핵심 트렌드인 인공지능, 증강 및 가상 현실, 블록체인 및 IoT에 대한 기초연설, 폭넓은 강연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URL : <https://startsummit.ch/>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Global SME Policy Trend

발 행 처 : 중소기업연구원

발 행 인 : 김 동 열 원장

편집위원 : 전인우 부원장, 김광희·백필규·심우일 수석연구위원 등

주 소 : (0707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전 화 : 02-707-9800, 팩스 : 02-707-9894

홈페이지 : <http://www.kosbi.re.kr>

문 의 처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 02-707-9873

인 쇄 처 :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02-2279-9241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